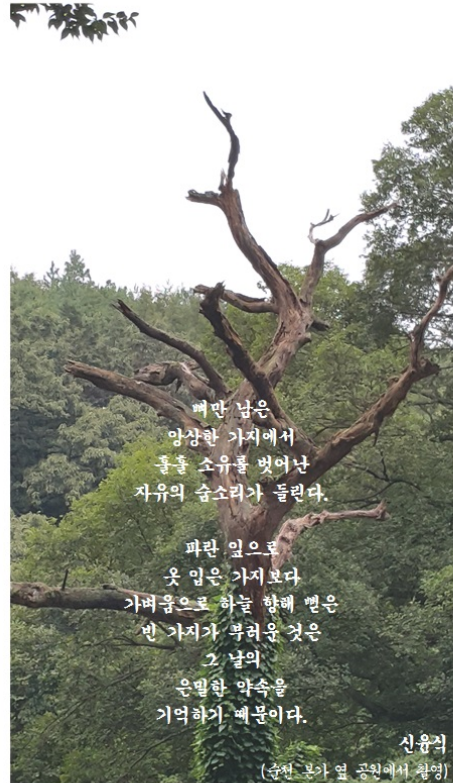


EUNSEOK CHURCH MATHETES



제24권

44

2016.10.30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사55:8)

은 석 교 회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10-3323-9049

<http://www.onlycross.net>

성소와 지성소

겔 41:1-7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라는 취지나 솔로몬 성전의 부족함을 채우라는 뜻에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 성전으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곧 실패한 인간에게 의로움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함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담긴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성전은 서로 단절된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과 믿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굴러갈 수 없다거나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에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신 일에 인간의 노력이나 실천이 개입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행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도 없음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솔로몬 성전의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2절에서 언급되는 성소와 4절에서 언급되는 지성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천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는 일 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몸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인간이기에 희생제물의 피로 죄가 가려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 용서되었기에 구약 방식의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소와 지성소가 존재하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자기 백성 되게 하시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근원입니다. 성소가 존재하고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된다고 믿었습니다.

왕상 8:10-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궐을 성전으로 옮깁니다. 제사장이 언약궐

를 지성소에 두고 성소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
의 영광이 여호와와 성전에 가득하였다는 것입
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여호
와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성전을 그런 의미로 생각했
습니다. 성전이 여호와와 계시는 처소이고, 여
호와와 영광이 함께 하는 거룩한 장소로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영광은 언약궤로 인한 것이
었습니다. 즉 언약궤로 인해서 여호와가 영광
을 받으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
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것과 연
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싫증이 나도록 들으셨
을 것입니다. 싫증이 나도록 들으셨다는 것은
제 임의로 본문과 상관없이 그러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가르치
기 때문입니다.

왕상 8: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
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렘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고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돌판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넣은 것이라고 말합
니다. 모세가 언약궤에 넣은 두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온 원래의 돌판이 아닙니다. 원
래의 돌판은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고
깨뜨려 버렸습니니다. 그리고 처음 것과 같이 깎
아 만든 것이 언약궤에 넣은 돌판입니다.

출 34:27-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
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나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
웠음이나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
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
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
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
하셨더라”** 고 말씀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기로
확증하신 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
다. 그 일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심으로 이스
라엘을 의의 영광에 참여되게 하시겠다는 것입
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은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죽음의 존재임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자체
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을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건축했다 해도 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
고 보면 현대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
면서 크고 화려하고 멋있게 건축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광을 빙자하여 인간이 자기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일 뿐입니다.

성전에서의 여호와와 영광은 언약궤와 연관
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이 말씀
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언약을 선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의미를 알지 못
했습니다. 단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음으
로 자신들이 영광된 존재가 되는 줄로 알았고
자기들의 손으로 들고 나온 제물과 제사로 인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그들에게서 사라졌을 때 절망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것은 맞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크기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떡을 놓는 상과 불을 켜는 등잔대와 향을 피우는 금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본문의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이 없습니다. 아무것으로도 가려져 있지 않은 채 다만 성소와 지성소라는 공간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성전 안의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성소와 지성소를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떡을 가져다 놓지도 못하고 불을 키지도 못하며 향을 피우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언약궤가 없으니 제물을 잡는다고 해도 그 피를 가져갈 곳이 없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기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 깨어져야 할 이유라는 사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증거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보여준 새로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언약궤를 포함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은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인간이 지켜서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지킬 수 있는 존재조차도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거룩해지는 방식인 옛 언약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지키고 이루어야 할 것이 없는 완성의 세계에 있게 하신다는 새 언약 아래 있게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새로운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인자는 고난 받는 자라는 뜻인데 에스겔이 고난 받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지내고 그 날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지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390년 동안의 죄와 유다의 40년 동안의 죄를 에스겔이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기간 동안에는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아 보리 떡처럼 만들어 인분 불에 구워서 하루 이십 세겔씩 먹으라고 합니다. 이십 세겔이면 220그램이 조금 넘는 양인데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이십 세겔 무게의 떡을 먹으면서 430일을 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만 겨우 연명하는 수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과 유다의 죄를 에스겔이 짊어지게 하셔서 그 같은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고 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을 인자라고 하시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 의 새 언약이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되고 완성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될까요? 그들은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된 그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피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 의를 이룰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알게 되며 언약의 완성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굴복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을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새로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신 세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할 수 없는 세계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잇는다면 그는 여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 9:11-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과 상관없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가 우리의 온전함이 되는 복된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자기의 손으로 이루는 일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예 자기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온전해졌다는 것이 믿음으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이 창조에 속한 일일 뿐입니다.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나 구원 할 수 없음을 안다면 이 창조에 속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에 관심두지 않게 됩니다. 신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이룰 것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증거 해야 합니다. 증거 하되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 앞에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가치 없음도 함께 증거 해야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 곧 예수의 피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믿지 않는 것임을 증거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인간이 행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없는 것이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인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

님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날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벽들이 모두 그룹과 종려나무로 새겨져 있습니다. 계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인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란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성전의 벽에 새겨진 그룹과 종려나무는 어란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행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에 되어서 천사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지만 측량된 성전을 그 크기대로 재현을 한다면 그 규모와 크기에 입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전에서의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나의 실패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이 생생하게 다가와져야 하고 하나님이 인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일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함으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부인되고 예수님의 피만이 심령에 자리하게 됨으로써 생명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입니다.

믿음과 신념

마 26:33-35

믿음 85강 10. 9월 설교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심으로 믿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의 역사가 증거 하는 내용입니다.

가령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발단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있지만 여

기에는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라는 가인의 착각이 자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분노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나 자신이 한 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누구든 자신과 자신의 손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착각임과 동시에 버리지 못하는 고집입니다.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의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향해 완악하다고 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강한 신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자의 고집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같은 모습에서 우리의 문제를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믿음을 강조하는 현대 교회와 자신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 신뢰하는 우리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흠어지리라”(마 26:31)**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즉 인간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는 본성의 존재임을 아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부인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함으로 존재 가치가 향상되고 인정되는 것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신 예수님을 버리고 흠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같은 인간의 본성과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는 말로 예수를 끝까지 따를 것을 장담한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할 수 있다' 라며 자신을 믿는 사람의 귀에 '넌 안된다' 는 말이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는 말로 끝까지 자기 자신감을 보인 것입니다. '나를 그 정도의 인간으로 밖에 안 보십니까?' 라고 항변이 담긴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까지 부인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의지, 신념, 결심 등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따라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래와 같은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자기 의지, 신념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을 인도해줄 목자가 없다 해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믿는 것이고 지금의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는 등의 말들이 베드로의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대 교회를 보면 믿음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믿음을 부인하고 핑계치는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현대 사회의 사고방식은 자기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는 자기 의지와 신념에 의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람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다' 라며 자기 최면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심리적 요소들은 믿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말들은 믿음을 말하는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스스로 믿음을 부인하고 자기 결단과 의지와 결심으로 스스로를 책임지는 불신앙의 종교집단

으로 전락하는 결과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신념과 자신감으로 어떤 상황에 서도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죄든 의로움이든 인간이 책임지고 이루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인간은 분명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이 문제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닭 울기 전에, 다시 말해서 새벽이 가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을 때 자신을 믿어 주지 않는 예수님께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는 상황이 되자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라지고 위협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것만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에게 믿음은 가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사니이다" (마 16:16)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

로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와 다르지 않은 모습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앎이 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이고 성령의 지혜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자기의 죄를 보게 되고, 자기의 죄에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롬 3:10-12)**는 말씀이 자신의 실상임을 자각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완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완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완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롬 7:18-19)는 말씀 또한 자신의 실상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처럼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실상,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절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곧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책임지고자 하는 교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는 말로 교인을 선동하는 것은 교인들을 모두 교만으로 끌어가는 악한 행위일 뿐입니다. 교인들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려 교회로 돌아올 이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 19:18-19)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지켰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 19:21)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그의 자신감도 재물을 버려야 하는 문제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보다 우월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에서도 타인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있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드러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장담에서도 역시 좀 더 우월할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힘을 고집하고 자기 의지와 신념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 까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집하는 것이 생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버려지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형제들의 불안

창 50:15-18

122장 2016. 10. 26일 설교

아굽을 장사하고 난 뒤에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행한 모든 악에 대해 요셉이 갚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굽이 죽고 없으니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요셉 형제들의 처지에 있다면 요셉이 보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

니다. 요셉에게 행한 일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악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운명이 애굽 총리인 요셉의 생각과 말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생각한다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안은 결국 요셉이 누구인지 요셉의 실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자신에게 한 일로 인해 근심하

지 말라고 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보복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요셉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 아들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지도 않았고 죽일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은 선악과 먹은 인간 본연의 마음에 의한 것입니다. 시기에 의해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것 역시 아벨에 대한 가인의 마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간 본연의 마음, 본성에 의해 드러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형제들의 악함으로 인해 버림을 받았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형제들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애굽으로 팔리지는 않았다는 것이 요셉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로 여겼고, 따라서 형제들에게 보복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봤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못했고,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이 행한 악에

대해 보복하는 요셉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드러나는 기독교인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그러한 불안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함이나 삶으로 인해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죄인의 몸으로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도 않았습시다. 예수님이 흘린 피 자체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인데 여전히 자기의 행함으로 인해 징벌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단연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이 행한 일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뿐입니다. 애굽으로 팔린 것이 비록 요셉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형제를 미워할 이유도 보복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전하는 야곱의 마지막 명령은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빙자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면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아람은 그러한 명령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람의 아들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의 명령을 멋대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하고 자기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아버지의 명령도 제멋대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지금의 기독교인들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대와 상관없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식당가는 것이 죄입니까? 기독교인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문제를 두고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주일에 밥 사먹고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편함을 위해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무엇을 하고 안하고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존재이며, 그것으로 인간 자체가 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일에 음식을 사먹든 사먹지 않든, 술 담배를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악한 자일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예수님의 용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를 받음으로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합니까?' 라고 항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중심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

는 것에 지나지 않기에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람의 아들들은 자기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함을 두고 본다면 요셉의 마음을 받고 자신들이 행한 악을 요셉이 갚는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의 악함을 깊이 생각한다면 불안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행한 일을 들고 요셉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해 어떻게 갚는다 해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요셉에 대한 자기의 악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로지 요셉이 악을 갚을 수 있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끝까지 자기중심의 모습만 보일 뿐이고 아버지의 명령 역시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대로 만들어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려면 누구나 벌 받지 않고 복만 받기를 원하지만 있고 있는 것은 인간은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현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심에 대해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빙자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한 아들들은 비록 요셉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고 해도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된 것에 대한 안도감이 앞설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운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의 자기중심적 모습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이고 그로 인한 요셉의 애痛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불안할 것은 없습니다. 심판이 당연한 나 같은 자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소식

1. 신자의 운명은 세상에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2. 11월 5일(토)에 은석교회 आयु회를 갑니다. 장소는 충북 청주에 있는 청남대이며 다른 곳도 관광할 예정입니다. 도남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합니다.
3. 큰기쁨교회를 위한 헌금은 구제부 2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100만원입니다.



옥잠화

예배시간안내

예배모임	예배시간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2:30
수요일	7:30
주일학교	1:00



주일오전예배

11:00 인도 : 신유식 목사

목상기도 다 할 깨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6장
 교 독 문 38(시92편)
 기 도 조규현 장로
 찬 송 369장
 성경봉독 겔 41:1-7

● 성소와 지성소(100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39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이성희 장로



주일오후예배

14:30 인도 : 신유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42장
 기 도 신원숙 집사
 찬 송 397장
 성경봉독 롬 5:1-4

● 믿음과 환난(믿음88강) ●

기 도 설 교 자
 찬 송 336장
 주기도문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 김옥자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 신유식 목사

창세기 강해 123강